



작은 도서관 겨울방학 대인기

어린이들이 목포시 원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무지개 작은 도서관에서 책읽기에 한창이다.

목포 13곳 프로그램 다채...어린이 발길 줄이여

이처럼 이용객들이 많은 것은 목포시 관내 23개동 가운데 13개동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1월 들어서면서부터 작은 도서관이 비좁을 정도로 찾는 어린이들이 부쩍 늘었다. 겨울 방학으로 학교를 가지 않는데다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놀기에 여유가 생기면서 작은 도서관이 어린이들의 대체 놀이터로 인기와 관심이 커지는 추세로 보인다.

또 작은 도서관에서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각종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어린이들을 유인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무지개 작은 도서관 교경희 간사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주산·암산 프로그램과 겨울방학 특강으로 '도서관에서 그림책과 놀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교육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들의 도움을 받지만 요즘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비누 만들기 공예' 등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 간사는 또 "도립도서관과 제휴로 진행되는 '이야기보따리' 행사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와도 협약을 체결해 매주

1회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미취학 아동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이도 윤(연산초 5학년)군은 "책을 맘대로 볼 수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 편하고 좋다"며 "고학년 어린이들은 방학숙제를 하기 위해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자녀의 방학이 부모에겐 개학이라는 말처럼 학부부 입장에선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도록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적지 않다"면서 "아이가 도서관에서 놀면서 독서에 취미를 가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함께 방학 유익한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영권 목포시 문화예술과장은 "13개소에 이르는 작은 도서관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틈틈이 도서관을 찾아가 한 달에 한번 꼴로 개선사항이나 예로사항을 체크하고 있다"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은 도서관은 월요일은 휴관하며, 화~일요일은 매일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평가' 국무총리 표창

목포시가 국민안전처 주관 '국가기본 체계 재난관리평가(식용수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국가기본시설로 지정된 9개 분야 총 75개 기관에 대해 이뤄졌다. 10만톤 이상 전국 20개 정수장을 대

상으로 실시된 식용수 분야 평가에서 목포시는 위기관리 매뉴얼 상황관리 체계 중 비상급수대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수도물 공급 중단 시 시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담담과 장흥담에서 공급되는 2개 광역상수도간 비

상연계관로 구축을 완료해 상수도관 사고로 1개 계통의 용수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단수 없이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학교 등)의 저수조(309개소) 및 옥내급수관(57개소)에 대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 수범사례로 평가받았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제철 맞은 물김 본격 출하...어민들은 '한숨'

생산량 전년보다 20% 줄고
중매인 한명이 단독 수매
가격 하락 부채질 주장도

목포시 울도·달리도 등지에서 생산되는 물김이 제철을 맞아 본격 출하되고 있으나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여기에 중매인 한 명이 단독으로 물김 수매에 나서면서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돼 어민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17일 목포시의 울도 어촌계 등에 따르면 물김 성장에 필요한 조건은 바다물 수온이 8℃내외지만 최근 이상기온으로 수온이 높아지는 등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김 작황이 좋지 못해 염도가 탈락하고 성장도 부진해 전년도 생산량보다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물김 생산 시기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다. 지난해에는 울도와 달리도에서 50여 어가들이 2979톤을 생산해 38억 19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물김 생산량이 2800톤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위판고도 36억원 을 밑돌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일 현재 물김 수매 가격은 120kg 기준으로 상품(上品)이 15만~20만원 선이며 중품은 10만~15만원선에 거래돼 전년도 와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목포시 북항 소형어선 물양장에서 울도 달리도 등지에서 생산된 물김 수매가 한창이다.

목포시 북항 소형어선 물양장에서 위판된 물김은 목포 인근에 대규모 김 가공공장이 없는 탓에 주로 해남이나 고흥 등지로 팔려 나간다.

특히 물김은 초벌을 떼어낸 뒤 2~3회 차인 12월에 채취한 김이 가장 맛있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12월에 이상기온으로 성장이 더디어 생산 어민들도 울상이다. 그나마 올 1월에 들어서면서 예년 수온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생산량 하락에 이어 중매인의 담합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래저래 어민들만 손해를 보는 분위기가.

김진기 울도 어촌계장은 "생산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중매인 한 명이 단독 수매하는 구조다 보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매인의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대다수 어민들도 "물김 수매도 수협 위판 체계처럼 공정하게 이뤄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북쪽의 중매인이 수매에 나서야 한다"면서 "수년째 관계기관에 이 같은 건의를 하고 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며 목포시의 수협 측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제2청사 '트윈스타 행정타운' 내달부터 입주 시작

도시개발사업단 등 4개 기관 이전

목포시 제2 청사인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목포시는 "분양 대금 217억 가운데 잔금 43억 원이 완납되는 이달 말부터 산하기관 이전 작업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트윈스타 행정타운에 입주할 대상 기관은 목포시 도시개발 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단, 교육문화 사업단, 목원동 주민센터

등 4개 기관이다.

입주 인원은 200여명이며, 전체 목포시 공무원의 10%에 달한다.

목포중앙식료시장 상인회와 원도심 상가 번영회 등 주변 상인들은 김수록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 경기를 살리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행정기관 입주를 반기고 있다.

행정타운 입주를 계기로 분양대금 감액 협상도 본격화된다. 이는 행정타운 입주

추수 변화에 따라 감사원이 분양대금을 감액하라고 지적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2층에서 4층까지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3층에서 5층으로 변경된 만큼 5층 분양가를 부동산업계 관행대로 2층보다 44%를 감액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은 일단 LH측과 협상을 통해 감액을 이끌어 낼 계획이지만,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2층 분양공고를 LH가 미루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정기간사...여성 승진기회 넓히고 감사실장 교체

본청 과장 동장 발령 등 주목

목포시가 2016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목포시는 지난 12일 김창욱 기획예산과장과 차연희 사회복지과장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인사를 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5급 승진 교육대상자 10명과 4, 5급 전보 인사를 했다.

이번 인사는 주로 2월에 하던 예년과 달

리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됐으며, 국별·연령별 안배와 여성 공직자에 대한 승진기회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감사실장을 교체하고, 시청 개청 이래 최초로 예산 담당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전격 발탁한데 이어 본청 과장을 동장으로 발령하는 등 기존 인사 관행을 탈피한 점도 주목을 끌었다.

신현청 목포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승진인사는 민선 6기 목포시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위해 업무추진능력, 시청 기여도와 경력 등을 고루 반영했다"면서 "시민과의 소통, 생활밀착형 행정,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채 절감 및 국비확보 등 재정건전화, 독거노인·장애인·저소득 소외계층우호를 담당하는 현업부서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6급 이하 후속 인사를 오는 2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